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 ~ 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1 月 1 日 (土) 2011 年 第 693 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 崔 栄 信・編集人 /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info@kccj.jp

メッセージ

신년 메시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빌립보서 1:20,21

최영신목사 (총회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를 맞이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뿌린 씨앗들과 심었던 모든 것들이 새해의 헌신된 믿음의 삶을 통해 보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누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결심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이 한 해를 살고 싶습니까? 기대와 소망이란 삶의 목표와 이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의 뜻은 “삶을 명령 받았다” 혹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임의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부르신분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 일본에 있게 하였고, 재일대한기독교 교회의 신령한 공동체 (예배공동체, 양육공동체, 평화공동체, 복음선교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의 자리를 견디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의 의미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 으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20) 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하다” 는 말은 “크게 만들다” ” 확대시켜 잘 보이게 하다” 는 뜻입니다. 곧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는 것” 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영광된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래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21)

< 총회신학교 > (総会神学校集中講義)

감리교 신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집중강의

총회신학교에서는 지난 1월 5일 부터 3일간 한국감리교 신학대학교 (감신대) 김홍기 총장 (역사신학), 이덕주 교수 (교회사), 이정배 교수 (조직신학) 가 집중강의를 하였다.

김총장은 “종교개혁의 신학사상”이라는 주제로 마틴 루터, 존 칼빈을 언급한 후에 존 웨슬리의 신학사상의 특징인 자유 의지적 완전 성화론과 구원의 완성은 믿음과 행함으로 성취됨을 강조하였으며, 완전 교리에 의해 종교개혁 구원론을 더욱 성숙시키고 완성시켰다고 전했다. 그래서 감리교는 체험의 신앙을 중시하므로 구역예배와 부흥집회가 확산 되어 한국 개신교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덕주 교수는 “근대 한중일 (韓中日) 관계사에서 본 한국 기독교인의 역사체험과 선교의식”이란 주제로 일본과 중국을 비

교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특징을 밝혔다. 이어서 “되돌아 보는 한국 기독교사 100년”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사실들, 특히 주기철 목사의 순교사상에 대하여 왜곡된 부분을 재검토하였다.

이정배 교수는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문화적 민족주의로”와 “민족과 탈민족 논쟁의 시각에서 본 토착화 신학을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복수 (多衆)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삶을 살아야 할 책무가 있으며 (Never ending story), 우리가 이어가야 할 예수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의미화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강의에서는 존 웨슬리 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대하여 신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보고 : 안현숙 총회 신학생)

在日大韓基督教会立 在日総会神学校
2011 年度学生募集案内

本校は、一般教育を修了したものが、基本的な神学教育を修め、現代の在日同胞社会の多様性に十分に対応できる福音伝道者の育成を目指しています。

在日宣教に熱い志をもった学生を求めています。

1. 募集人員：神大院生 (3 年課程、および 2 年課程) 若干名

2. 出願資格：

- ①受洗後、1 年以上であること。
- ②在日大韓基督教会の正会員
(ただし、他教団出身者は要面接)
- ③伝道者としての召命感があること
- ④一般大学卒業者および他神学校卒業者

3. 出願期間：

2010 年 12 月 1 日～2011 年 2 月 12 日 (土)

4. 提出書類：

- ①入学願書 (本校所定の用紙)
- ②志望理由書 (400 字 × 3 枚)
- ③履歴書 (本校所定の用紙)
- ④推薦状 (所属教会の牧師または機関代表者)
- ⑤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
- ⑥最終学校の成績証明書
- ⑦写真 2 枚 (3× 4 cm)

5. 試験：

①日時：2011 年 2 月 22 日 (火) 午前 10 時～

②会場：総会神学校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 4-5-1

TEL: 03-3899-9861)

③試験科目：聖書、英語、面接

④受験料：5,000 円

⑤合格発表：2011 年 3 月 4 日 (金) 書面にて通知

6. 特典：

①卒業後、伝道師考試を経て、在日大韓基督教会の道伝師として 2 年間訓練され、牧師考試の資格が与えられる。

②学費が安い。年間の授業料は 15 万円。

③総会奨学金の他、各種の奨学金の恩恵がある。

④寄宿舎が完備されている。(毎月約 2 万円)

⑤本国での語学研修制度や宣教協約を結んでいる海外教団の神学校へ留学する機会がある。

問い合わせ：教務 韓聖炫牧師

TEL: 03-3890-3365 携帯 080-3355-3890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 年 4 月 25 日、創立 100 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 (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 時間サービス。10 名様から 2020 名様の間接及び宿泊研修 (50 名様) 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 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 (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 アジア語学院 (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 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関西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 (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年金委員会>

重要なお知らせとお願い

全国の各教会・伝道所の担任教役者及び会計責任者には総会年金業務につきまして、いつもご支援とご協力を頂き感謝いたします。

ご承知のように、2007 年度総会時に年金制度が改正され 2008 年 1 月から、年金基金の拠出（負担金）が加入者本人と所属教会の折半による「受益者負担」の方式から、全教会が一定割合の拠出金を負担し合う「教会負担」方式に変わりました。このことは、総会の年金制度が加入者本人と教会会計担当者だけでなく、全教会の全信徒も関り、関心を向けるべき事柄になったと言うことでもあります。

全信徒によって捧げられた献金により総会の全教役者の年金を支えていこう、と言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全教役者と全教会の会計責任者と共に全信徒の皆様も関心を持っていただいて、より良い年金制度を作り上げていけるよう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これまで何度かお願いをしていることですが、次の四点についてお願いをいたします。

1. 年金拠出金（負担金）の振込は、次のどちらかの方法で送金して下さい。

①振込取扱票を利用する場合

口座記号番号：00120-0-595946、

口座名：在日大韓基督教会 年金委員会

*用紙に印刷されていますので、振込教会名などを記入して振込んで下さい。

②ゆうちょ銀行を利用する場合

記号：10040、番号：73374811、

口座名：在日大韓基督教会 年金委員会

2. 年金負担金の振込みは原則として決定・通知された年額を一括払い及び月割額を毎月ごとにお振込下さい、年金支給等を支障なく行うためご面倒でも毎月の振込が事務上大変力になります。

3. 2007 年、2008 年、2009 年度の負担金が未納の教会は早急にお振込下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4. 各教会の「財政担当者確認書」の提出がまだの教会は早急に提出して下さい。

*年金等にご質問がありましたら、各地方会年金担当者あてにご連絡下さい。

<연금위원회>

중요한 알림과 부탁

전국 각 교회 (전도소) 의 담임교역자 및 회계 담당자님들께서 총회연금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7 년도 총회 때에 연금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07 년까지는 연금 가입자 (교역자) 와 소속교회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 년 1 월부터는 각 교회가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내는 <교회부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회 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전교역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더 나은 연금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연금은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입금해 주십시오.

① 입금전표를 이용할 경우

구좌 기호번호 : 00120-0-595946,

구좌명 : 재일대한기독교회 연금위원회

* 용지의 필요한 사항인 교회명 등을 기입해서 입금해 주십시오.

② 우체국 은행을 이용할 경우

기호 : 10040, 번호 : 73374811,

구좌명 : 재일대한기독교회 연금위원회

2. 연금 부담금의 입금 방식은 1 년 분을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과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연금 운영을 위해서는 매월 입금방식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07 년, 2008 년, 2009 년도 연금을 미납 중인 교회는 조속히 입금해 주십시오.

4. 각 교회는 재정담당자 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연금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회 연금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関東地方会】全三郎長老 (TEL : 03-5995-5545 H.P. : 080-3705-7305) 【中部地方会】朴洋子長老 (TEL : 052-562-0320 H.P. : 090-4193-0010) 【関西地方会】金容贊長老 (TEL : 06-6675-7444 H.P. : 090-3650-9676)
【西部地方会】李聖雨牧師 (TEL : 06-6417-0563 H.P. : 090-3941-4780) 【西南地方会】金貞子長老 (TEL : 093-511-0530 H.P. : 090-8222-1781)

不動産管理
アカンセル名駅
李 光 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 2-2-27
電話・FAX 052-451-7713 携帯 090-3578-7571
E-mail: kwangse.lee@nifty.com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鍾 善**
取締役社長 李 鍾 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 1 丁目 965-1
TEL 0593-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 14-1
TEL 0564-31-8893(代)

＜西南地方会＞

벳부전도소가 교회승격식을 (別府伝道所 教会昇格式)



지난 2010년 11월 3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사남지방회 소속인 벳부전도소가 정식으로 교회로 승격되는 축하의 행사가 거행되었다. 교회 승격식은 서남지방회 회장인 김성효목사(熊本教会)의 사식으로 시작되어, 최정강목사(博多教会)의 [십자가가 서는 곳](十字架の立つところ)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어서 김성효 지방회장이 교회승격을 선언함으로 마침내 벳부전도소는 교회로 승격되었다.

이날 행사에서의 축사는 일본기독교단 오이타지구(日本基督教団大分地区) 서기인 사이토 마이쿠(斎藤真行)목사와 일본기독교회 오이타중앙교회(日本キリスト教会)의 남모 아키오(南茂昭夫)목사가 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총회장 최영신목사(宇部教会)의 축도로 승격식을 모두 마쳤다.

금번에 교회로 승격한 벳부교회는 지난 2000년 11월 3일에 이혜란목사(現、沖繩教会)에 의해 전도소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8년 4월 29일에는 신치선목사가 부임하여 목회를 하고 하면서 승격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전도소에서 출발한지 10년 만에 교회로 승격한 벳부교회는 지금 아프리카와 세계 여러 나라, 10여개국 이상의 유학생들과 일본, 한국인들의 성인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에 열심을 쏟고 있는 중이다. 기쁨의 교회 승격식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보고: 신치선목사)

＜関西地方会＞

地方会創立 60 周年記念大会

関西地方会は、去る 2010 年 12 月 5 日(主日)午後 3 時から、プール学院清心館チャペルにて、「信仰のつながり、希望の一步を!」という 주제로、創立 60 周年記念大会を開催した。

第 1 部は記念礼拝、第 2 部は記念式典、第 3 部は祝賀会として行われた。第 1 部は、記念大会を祝うファンファーレと共に林芳子長老の司会で始まった。司会者の歓迎の言葉と「慈愛の息吹よ」という賛美が終わってから会衆と共に信仰告白をした。その後、関西地方聖歌隊連合によって会場の人の心をひとつにつなげてくれるような賛美(心をひとつにして下さい)が歌われた。

引き続き、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 15 章 13 節をもって、崔榮信牧師(総会長)が「信仰のつながり、希望の一步を!」という題で説教した。そして、壮年部(信仰)、女性連合会(連合)、教会学校(希望)、青年連合会(歩み)の代表が、それぞれの主題について祈りをささげると会衆がその祈りに応答した。この交互の祈りは、とても感動的なものであった。

その後、席上献金と感謝の祈り、賛美歌 523 番を歌ってから、金元治牧師(大阪西成教会元老牧師)の祝祷をもって、礼拝が終わった。

第 2 部は、創立 60 周年実行委員長である趙永哲牧師の司会のもと、大会長金鐘賢牧師による「大会辞」が述べられた後、以下の来賓紹介と祝辞があった。向井希夫牧師(日本基督教団大阪教区総会議長)、田部郁彦牧師(日本キリスト教会近畿中会議長)、孫炳仁牧師(大韓イエス教長老会釜山長老会会長)、洪性完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総幹事)。

第 3 部は、金錦順・嚴敏俊長老の司会のもと、祝賀会が行われた。関西地方会に属しているすべての教会が、それぞれ賛美と教会紹介、動画、記念誌などを通して、自分の教会を一所懸命にアピールする、とても楽しい時間であった。すべての教会紹介が終わり、大会長である金鐘賢牧師の閉会宣言をもって、関西地方会創立 60 周年記念大会が主の恵みの中で終わった。

60 年記念大会を主の御恵みの中で終えたことを何よりも神さまに感謝し、協力して下さったすべての教会にも感謝したい。さらに、今回は関西地方会 60 周年の記念大会と共に「創立 60 周年記念誌」(写真で見る 10 年の歩みと各教会の紹介)が出版されたことは歴史的にも意味がある。また、この模様



と記念誌を全国の教会にも配布することにより、全国的にも喜びと恵み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た。故に、これらのことは各地方会のあり方と使命をもう一度認識させる貴重な「歴史的な行事と資料」として継承されて行くであろう。

(報告：朴成均牧師)

＜西南地方会＞ 2010、クリスマス音楽礼拝開催



西南地方会では、去る 12 月 12 日、宇部教会において地方教会女性連合会と青年連合会の主催によるクリスマス音楽礼拝が開催された。地方会所属の 10 教会中、9 教会から 100 余名が集まった礼拝は、三部構成で行われた。

第一部の礼拝では、青年部長（岸本真理子）の司会のもとで、姜富子会長の祈り、聖書朗読（青年会・女性会の代表）、連合聖歌隊による賛美があった。引き続き、洪性完牧師（総幹事）による「心の表れる贈り物」（マタイ 2:1～12）と題してのメッセージがあった。



洪性完牧師

第二部では、在米福音歌手である張美卿氏による「賛美と証し」の一時があった。彼女は、たまたま宇部地区の市民クリスマスに來演し、何箇所かの教会で奉仕もされる中で西南地方会の行事にも奉仕を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彼女は、福音伝道のため日本でも働きたいという希望をもっているようで、どうかそれが主のみ旨であるよう切に願った次第である。



張美卿氏

第三部は、青年会の主催だったので、宇部教会の李熙奭兄弟による軽妙な司会のもと、各教会の紹介が行われた。時間の関係上、例年通りの各教会からの出し物はなかったが、別

府教会は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のか。去年と同じく、アフリカ系の三人を中心に、5つの国の青年が一丸となったダンス賛美には、共に主に在る仲間であるという感謝と喜びで会場は感動で一杯になった。又、いつもコンビを組み、時勢を皮肉りながら軽妙なコントで会場を沸かせていた長老は、相方が入院中で思案していたが、新しい相方が与えられたと喜びつつ、「お札まき」で会場中を盛り上げた。

宇部教会は、里山を切り開いて建てられ、広い敷地の中、周りを深い緑で囲まれたガラス仕立ての教会である。昼は自然と一体化し、夜は光と闇の中に静かに鎮座している。その中に響く賛美と祈りとメッセージは、真に厳かであり清らかである。

在日大韓基督教会は二世紀目を迎え、今、信仰継承が問われている。各教会では、子供の顔、在日三、四世の顔がほとんど見られないのは残念ではあるが、しかし、多様化した境遇の中での新しい出会いも沢山与えられている。そして、そういう現状の中に、神さまのみ旨があると確信している。

どうか、時が良くても悪くても、決して変わる事の無い主を、愚直に漕ぎ続ける者でありたいと切に願いながら、地方会女性部長である鄭在植牧師の祈りをもって、帰途についた。

(報告：金幸子)

＜西部地方会＞ 第 27 回 日韓交流信徒大会を開催

さる 1 月 10 日（成人の日）に、西部地方会と日本基督教団兵庫教区共催による「第 27 回日韓交流信徒大会」が日本基督教団神戸栄光教会で開催された。

この大会は、在日大韓基督教会と日本基督教団が 1984 年に結んだ宣教協約に基づいて、西部地方会と兵庫教区は 1985 年 1 月以来、毎年、主にある兄弟姉妹の愛と祈りに支えられて集ってきた。「主は一つ、信仰は一つ」の主題のもとに聖書の御言葉に聴き、聖餐にあずかり、また交わりの恵みを豊かに与えられてきたのである。混迷した現代にあって、共に手を取り合って主から与えられた使命を実践したいと



願っている。この大会には、212 名（西部地方会 62 名、兵庫教区 150 名）という大勢の信徒が参加した。

開会礼拝は林英宰（武庫川教会、大会委員長）の司会のもとで、「線・선・LINE」（創世記 11 章 1-9 節、コリント 1 12 章 14-26 節）と題する林昌利（いむ・ちゃんに）伝道師（神戸栄光教会）の説教と祝福で礼拝を終えた。席上献金は浪速教会愛の家（ホームレス伝道）、虹の家（教団の引退牧師のための施設）と大会の運営のためにささげられた。

その後、10 分団に分かれ昼食を共にし、互いの信仰生活上の諸問題に対して真摯に意見交換をした。引き続き、クリスチャン音楽家として高名な沢知恵さんのピアノ弾き語りコンサートがあった。沢さんの母は韓国人牧師で祖父は韓国詩人の金素雲、父は在日大韓基督教会で按手を受けた日本人牧師の沢先生である。沢家の 3 代にわたる歴史は、日韓併合 100 年にあたり昨年夏の朝日新聞に大きく特集された。またこの御一家の苦闘の歴史は日韓のクリスチャンの激動の近代史の凝集でもある。

この沢さんの全身全霊で歌う姿に一堂は大きく感動した。歌の合間に沢さんが日韓交流信徒大会の垂れ幕を見上げ、“私の体の中では毎日、日本と韓国の血がぐるぐると交流しています。それも濁流となって。”と聴衆を笑わせた時、その背後にある歴史的な思いを感じさせた。歌の持つ力の大きさを実感した 1 日であった。韓日の信徒が神戸に集って共に礼拝をささげ、魂の交流をするということの意義を各自が再確認した。27 年という長い年月の間、この大会が途切れることなく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は神の奇跡の一つである。

（報告：林英宰）

＜関東地方会＞（東京教会） 朴憲昇名誉長老召天

東京教会の朴憲昇名誉長老が去る 12 月 13 日、ソウル大学病院で急性肋膜炎のため、満 75 歳の生涯を閉じて召天された。

父の故朴命俊牧師の 7 人の子らの長男として 1935 年 2 月に豊橋で生まれ育ち、父の転任に伴って豊橋、大阪、大垣、名古屋の在日大韓基督教会で教会学校や（全国）勉勵青年会で活躍し、南山大学独文科を卒業した後は、各種書籍のセー

ルスマンとして働く傍ら、勤続執事として名古屋教会で 15 年間、また妻子と共に東京に転居して画商として活躍する傍ら、東京教会で 11 年間奉仕した。

その後、1985 年より 20 年間東京教会の視務長老を務め、東京韓国 YMCA や全国長老会の活動などにメンバーとして加わり、名誉長老となった後は家族を連れ立ってハワイに移住して、愛する妻の韓愛敬聖徒と共に教会生活を送っていた。

世を去る 5 ヶ月前には岐阜の母（金明順師母）を見舞い、葬儀にも参列したが、その後、思いがけない病に冒されて危篤状態に陥った激しい苦痛の中で、本人はすでに自らの生死を主に委ねていた。国内外にいる妻子と兄弟姉妹と親族、信徒と友人らが駆けつけて励まし、語り合い、祈ったが、主の御心のゆえに安らかに天に召されていった。

ソウル大学病院葬儀場で 12 月 14 日の午後に東京教会前任の呉大植牧師の司式によって入棺式が執り行われ、16 日の午前に東京教会新任の金海奎牧師の司式によって告別式が執り行われた。遺族、親族、友人、知人に加えて、以前東京教会の会員であって母国に帰国した人たちのグループ“東京教会삼교회信友会”の方々も多数参列した。延べ 60 人が参列して死別の悲痛な涙を目に浮かべつつ、御国への望みと慰めを分かち合った。

朴長老は戦後の在日の苦難をつぶさに味わい、青年会運動を盛り上げ、信徒らとの交わりを深め、教会的・信仰的私見による指導性を発揮する足跡を残した。故人の逝去は、在日韓国人旧一世に最も近い旧二世のクリスチャン世代の終わりを告げる一つの節目となったが、日本の戦後史を生きた人々の信仰的遺産はなおも次世代に向け、御国に向けて語り継がれていくに違いない。

（報告：葬儀参列者・編集部）



港国際法律事務所

検索

一人でも悩まずに、ご相談下さい。

代表弁護士 玄君先（横浜弁護士会）東京大学法学部卒 弁護士 12 名

※業務内容 1. 企業法務（M & A、企業買収、事業再生）
2. 個人法務（債務整理、相続・離婚、金融被害）

まずはお気軽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24 時間受付

0120 - 980 - 428

〒220-0004 横浜市西区北幸 2-3-19 日総第 8 ビル 4 階

TEL: 045 - 628 - 9311 FAX: 045 - 311 - 8544

학습과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 소책자

（学習・洗礼・入教 教育小冊子）

학습・세례・입교 교육은

준비교육 소책자를 이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한국어 일본어 겸용이네!
- 현대어 표현으로 알기 쉬워요!
- 글씨가 크고, 내용도 충실해요!
- 신청: 總會事務局 (03-3202-5398)



創世記連続講解 (1)

尹宗銀 牧師



総論

1. 本書の内容

創世記はモーセ五書の一書として名称の意味と同じく天地創造の記事で始まっている。七十人訳ギリシア語聖書には ΓΕΝΕΣΙΣ [Genesis] 創始、起原の意味がついている。本書を二つに分けると 1-11 章までは世界最古の歴史として天地と人類の創造からノアの子孫の歴史を記録したものであり、12 章から 50 章までは神の選民イスラエル民族の祖先『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ヨセフ』等の族長たちの伝記を記録している。

歴史的な説話の形式で記録された最古の歴史だと言える。後世に起こる神の救いの計画の発展に関する内容を記録する事を目的としたゆえに、それに不必要なものは省略されている。これによって世の一般歴史とその趣旨が異な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

本書は実に聖書の苗床 [seedbed] である。この苗床 [seedbed] で現れる真理の苗は本書の中にある。本書は実に聖書の基礎であると同時に福音の宗教の揺籃として貴重な書である。本書の中の約束、模型、教訓等はわたしたちに研究の価値を示している。本書の中で祖先たちの信仰の経路はわたしたちの信仰上の多くの教訓を教えている。

2. 本書の年代

1-11 章までは 2000 年間の原始歴史で宇宙創造と人類の歴史とも言える。12-50 章までは 300 年間のヘブライ民族の発展史、選民の祖先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ヨセフの四世代の歴史である。

3. 本書の区分

本章を三大重要な事実に従って、三大十重でもって区分する事ができる。①十大族譜 ②十大始まり ③十大模型 [各章において分解して行く]

第一部 天地創造と人類の歴史 (1-11 章)

創世記 1 章『宇宙創造の順序』

創世記 1 章の総主題は『宇宙創造の順序』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9 項目に分けられる。

① 1 節、本章は創世記の緒言であると同時に聖書全体の緒言とも言える。冒頭の言葉に『初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というのは、実に、神の雄大な啓示の宣言である。この言葉は真理の根本であり、信仰の土台とも言える。神の創

造の御業に対して詩篇記者は『わたしの助けは、天地を造られた主のもとから来る』(詩 121:2) と歌った。宇宙 [universe] を創造された全能の神はいつの時代を問わず真理の根本であり、信仰の土台である。本章の物質創造は霊的には霊的な世界創造の模型とも考えられる (コリント二 5:17; エフェソ 2:10)。本章 1 節の『原天地』の創造は地質学上では幾億万年であるのか知るすべがない。

② 2 節、一般保守学者によれば、天使のために創造された原天地は天使の墮落によって地は混沌となったと言う。

③ 3-31 節、六日間の創造の順序

① 3-5 節以下では混沌の中から光と愛によって再創造された天地とも言える。2 節で神の霊が水の面に動いていたというのは、例えば雌鳥が雛を抱くように、という意味で描写している。創造主の愛が全宇宙を覆う時に、新世界が現れたと言う意味である。墮落によって暗闇の中で混沌たる人間の霊が神の愛と光と生命で改造され得ると言う真理を学べるのである。

② 3 節以下の創造順序は 1 節の原創造の続きであると言える。しかし科学者の進化論ではなく、神の意識的な個々の創造である (詩 33:9)。人間は神の像 [tselem, image] に似せて造られたが、墮落の後には神の像 [imago Dei] を失ってしまった。女が無くした銀貨を捜したように (ルカ 15:8) 神は墮落した人類を救って清めて聖化にすることによって創造の原状を快復すると同時に後日栄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 (フィリピ 3:21) 具体的に現状を回復するであろう。

③ それゆえに、人類の救いは失樂園から復樂園に戻すことによって救いの本来の意味をあらわした。聖書の最後の章である黙示録 21 章を本章に連続させることによって神の元創造の理念を実現するのである。その間全聖書の内容は罪惡の蔓延と救いの計画を成就する事に対する記事である。元来『創造する』ヘブライ語は『bara』で、無より有にする [create]。この言葉は聖書全体に 50 回もあらわれる。

< 尹宗銀牧師紹介 >

2011 年度から尹宗銀牧師 (現、横浜教会名誉牧師) の「創世記講解」を連載いたします。

尹牧師は、1927 年 5 月 5 日、韓国全羅南道順天市で生れ、関西学院大学神学部と大学院を卒業、ニューヨーク・ユニオン神学大学院を卒業、北米 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Dallas Texas 神学博士になった後、広島教会、西宮教会、堺教会、横浜教会で奉仕をしながら、第 35 回総会においては総会長として仕えました。

【著書・翻訳】『使徒的説教とその展開』、『新約聖書概論』、『韓・日 聖書教理問答』(韓国長老教出版社)、『神の栄光のみ』(つぐ書房) 等多数。

＜関東・中部地方会＞ 新年教役者合同研修会

去る 1 月 17 日（月）から 18 日まで、関東地方会と中部地方会が合同で 役者の新年会および研修会が富士箱根ランドにて開かれた。現地に集合した 地方会の 役者たちは、金根湜牧師（ハンサラン 会）の司会により開会礼 がもたれた。張慶泰牧師（東京第一 会）祈祷の後、金東洙牧師（東京希望キリスト 会）がヨハネによる福音書 12：1、2 節から、「キリストを喜びましょう」という説があった。

夕食後は、姜章植牧師（品川 会）の司会で、韓国の江北第一会の黄형택牧師による第一講義があった。黄牧師はルカによる福音書 5 章 16 節から「主と深く出会いましょう」というテーマで、〈まづ牧師がキリストと深い交わりを持つべきである〉と力強く語られた。

そして、〈牧師はみ言葉を説 するために読むが、キリストとの深い交わりを持とうと群衆が前に前にせまったようにみ言葉を求めているだろうか〉との問いかけもあった。

二日目は、午前 9 時から韓聖炫牧師（西新井 会）の司会により第二講義が開かれた。黄牧師はルカによる福音書 12 章 22 - 32 節から「信仰の器を育てましょう」というテーマで語られた。〈牧師は、神 の所有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そして心配するのではなく、すべての必要を たす神さまにゆだねることが必要である。信仰の器を育てることにより信仰によって牧会していこう〉と訴えた。

こうして関東・中部合同 役者研修会は感謝の内に幕を閉じた。

（報告：李明忠）



2011 年度 宣教師・総会神学生集中講座および研修会

- ・日時：2011 年 3 月 7 日（月）～ 11 日（金）
- ・場所：西部地方会
- ・研修内容：「総会憲法」「現代における総会（KCCJ）の福音宣教」西部地方会各教会の現場研修など
- ・講師：西部地方会牧師、神学校教授など
- ・参加費用：宣教師 2 万円、総会神学生 1 万円
（交通費は所属の各教会で補助をお願いします）
- ※ 各地方会で登録している総会神学生は毎年、必修です。
- 問い合わせ：韓聖炫牧師
（TEL 03-3890-3365 携帯 080-3355-3890）

編集 後記

2011 年度から、福音新聞・総会手帳の形が変わりました。しかしながら、その時期について、予算削減という言い訳では済まされないほど、全国の諸教会にはご迷惑をお掛けしました。

在日大韓基督教会は、いよいよ多様化の時代まったただ中にあります。お互いの違いを認め合い、総会全体の連帯を強められるには、どうしたらよいか、皆それぞれ模索中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その筋道がまだはつきり示されていないと思う方々もおられるでしょう。そのことを確かめ合うにも、この福音新聞が活用されることを願って止みません。

形態を変えて 8 面から出発することになります。近い将来、16 面にして日本語・ハングル、両面対訳にでき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一人でも多くの方々に読んでいただきたいからです。

総会手帳は、単純ミスも目立っております故、不本意ながらご迷惑をお掛けした方、教会には、ただ許しを請うばかりです。適切な大きさの正誤版を各教会・個人に送れるように計画しております。

011 년도부터 복음신문과 총회수첩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 전달된 그 시기는 예산삭감이라는 이유로만은 설명되지 않으리만치, 전국 각 교회에 폐를 끼쳐 죄송할 뿐입니다.

새일대한국독교회는 더욱 다양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총회 전체의 연대감을 높여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모두 제각기 모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치, 그 절차가 아직 뚜렷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음신문이 활용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형태를 바꾸어 8 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까운 장래에 16 면으로 늘려 한글과 일본어 양면 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총회수첩은 단순 미스가 눈에 띕니다.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교회와 교인에게는 다만 용서를 구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수정판을 각 교회 개인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伝道主日指定献金（2 月 13 日）

伝道主日献金は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1. 宣教師協同教団과의 宣教師協議會를 통한 本国에서의 日本宣教師 세미나 開催 支援
2. 「2011 年加入宣教師 및 總會神學生研修」支援
3. 各地方會・各教會의 伝道対策支援 및 總會神學生의 伝道訓練支援

・お問い合わせ：総会事務局 03-3202-5398 * 公文参照